印, 국제로드쇼로 불교유적지 홍보

캄보디아 · 베트남서 개최 예정
문화유산 구성된 플랫폼 제공
관광 숙박 잠재력 발휘 기대
지역사회 참여 유도 목적도

박영빈 객원기자

고대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북인도 비하르주가 불교의 역사가 깊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최초로 국제 로드쇼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인도의 '피오니얼' 등 현지언론들은 이번 로드쇼가 불교가 전해진 해외 각국과 공통된 영적인 뿌리를 재확인하고 성지를 방문하려는 순례자들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북인도 비하르주는 성도성지인 부다가야를 비롯해, 고대 왕사성 유적인 라즈기르, 유마경의 무대인 바이샬리와 날란다 불교대학과 같은 풍부한 불교 유적지와 유물들이 산재되어 있다. 비하르 주정부 관광국 국장 겸 수석비서인 아바이 쿠마르 싱은 "비하르주의 불교유산들은 인도를 다시금 불교세계의 중심에 올리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비하르주는 전 세계의 불교도들과 고대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둔 관광객들이 가진 거대한 관광 잠재력을 활용하려고 노력



인도 비하르주에 있는 성도성지 부다가야.
사진출처=위키피디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비하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불교 성지들을 중심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개최 준비 중인 국제 로드쇼는 비하르주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유산들을 한눈에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자이나교 등 비하르 지역의 영적유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비하르주는 부다가야, 라즈기르, 날란다, 파트나, 바이샬리, 라우리야 등의 성지를 일주하는 성지순례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인도 여행사 협회 부회장 라즈니쉬 카이스타는 "해외에서 로드쇼가 진행될 때마다 항상 인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수가 증가했다"면서 "인도가 가진 불교유산은 비하르주 외에도 많은 주에 산재했다. 만약 이번 로드쇼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이 더 합류하여 불교유산을 주제로 한 로드쇼가 진행된다면 관광 및 숙박 부문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현지 소식통들은 로드쇼에 대해 "계획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 핵심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로드쇼는 장기적으로는 불교문화유산들에 대한 재평가와 발굴, 복원과 같은 정책과도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쿠마르 싱 국장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현지의 불교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관련된 정책과 개발계획의 의사결정, 문화보존, 관광 관련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밝혔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현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대도시 이주 억제와 타지역 인재영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日 사찰에선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린다

현역 레슬러 부주지 아이디어
사찰 신도에 흥밋거리 제공
범죄 예방 주의사항 설명도

경내에 특설된 링 위에서 프로레슬러들의 격렬한 기술들이 난무한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코시가야시(越谷市)에 소재한 사찰 안코쿠지(安國寺)에서 열린 이벤트의 모습이다. 3월 3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NHK 뉴스' 등은 프로레슬링과 불교를 접목한 특별한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3월 2일 안코쿠지 경내 주차장에 세워진 링에서 진행된 프로레슬링 경기. 경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부주지 스님인 시즈쿠 아키 스님이다. 현역 여성프로레슬러로 활동 중인 시즈쿠 스님은 "매년 열리는 사찰의 행사에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서 흥밋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프로레슬링 이벤트"라고 행사의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중학교 때 우연히 TV에서 본 여성



프로레슬링 이벤트가 열린 안코쿠지 전경.
사진출처=NHK방송화면 캡쳐

프로레슬링 중계방송을 보고서 프로레슬러의 길을 가게 됐다고 전했다. "화려한 복장, 상대를 제압하는 압도적인 기술,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경기방식 등이 모두 매력적이었다. 사춘기의 우울한 기분이 밝아지고 많은 용기를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마추어 레슬링으로 시작하여 대학 졸업시엔 전일본 학생 레슬링 선수권 대회 67kg급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안코쿠지 경내에서 프로레슬링 경기 이벤트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매년 4회 정도 진행돼왔는데,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지되었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경기는 2인 1조로 싸우는 '태그 매치' 등 3경기가 열렸다. 150여 명의 관객들이 찾은 가운데 레슬러들은 로프 상단에서 상대를 향해 뛰어내리는 등 박력 있는 기술을 잇달아 선보였다. 시즈쿠 스님도 화려한 프로레슬러 복장은 물론, 승복을 입고서 경기에 임했다.

특히 이번 경기 이벤트에는 고시가야 경찰소와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이나 호신술을 테마로 한 프로레슬링 단막극도 공연돼 더욱 볼거리를 더했다. 레슬러들이 각각 범인과 피해자 역을 맡아 연기를 하고 끝내 멋진 레슬링 기술로 범인을 제압하는 스토리에 경찰측 강사가 범죄의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사이타마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벤트에 참가한 관객은 "조용한 이미지의 절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격렬한 난투가 일어나는 모습이 신선하고 재밌다"며 이벤트에 또 참여하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캄보디아 대종정 뗍 봉 스님 입적

2월 26일, 법랍 72세 · 세수 93세
캄보디아 불교 교단 최고 지도자



캄보디아 대종정 뗍 봉 스님〈사진〉이 2월 21일(현지시간) 세수 93세, 법랍 72세로 원적에 들었다. 지난 2월 29일 '폭스 뉴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외신들은 캄보디아 문화종교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스님의 입적사실을 보도했다.

캄보디아 문화종교부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최고 원로이자 대종정인 뗍 봉 스님이 2월 26일 오후 5시 40분(현시시각)에 세수 93세로 당신의 주석사찰인 왓 운날롬 사원에서 입적했다"고 발표했다.

뗍 봉 스님은 캄보디아 불교 최대 종단인 마하니까야 종단과 담마윳 종단의 공동 종정이다. 전 인구의 약 97%가 불교도인 캄보디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존경받던 스님이었다. 스님의 입적소식이 공식발표 된 후 캄보디아의 관공사와 거리는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조기를 게양했다.

1932년 시엠립에서 태어난 뗍 봉 스님은 1952년 씨엠립의 왓 리치보 사원에서 출가 생활을 시작했으나 크메르 루주 시대에 강제로 환속을 당하고 노동교화소 생활을 버텨냈다. 이후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진 1979년 베트남 승가의 도움으로 7명의 스님들과 다시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포교와 승단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뗍 봉 스님은 자신과 같이 강제 환속 당한 스님들을 찾아내고 다시 구족계를 받게 함으로써 캄보디아 불교의 승가를 재정립한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1991년 캄보디아 불교계가 마하니까야 종단과 담마윳 종단으로 분리되면서 뗍 봉 스님이 마하니까야 종단의 종정에 취임했다. 2006년 불교계의 추대로 두 종단을 모두 이끄는 대종정의 자리에 취임하면서 교단의 지도자라는 '상가라자'의 칭호를 받았다.

뗍 봉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은 캄보디아 전 총리 훈 센은 "아내와 나는 대종정 뗍 봉 스님의 입적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뗍 봉 스님은 일생 동안 국가, 종교, 왕정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1979년 1월 7일 크메르 루즈의 전복부터 입적까지 캄보디아 왕국의 불교중흥을 위해 불퇴전의 모습으로 앞장섰다"고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하와이 혼간지 사원, 무료 대중공양 대기록 달성

누적 7만5000식 기부…부처님 자비 실천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일본 정토진종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에서 무료 대중공양 대기록을 달성해 화제다.

지난 2월 2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하와이의 일본불교사찰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의 누적 7만5000식 무료 대중공양 대기록 달성 소식을 전했다.

2월 16일 하와이에 위치한 일본 정토진종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은 7만5000번째 무료 대중공양 배식을 기념했다.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 평화위원회는 "무료 대중공양은 종교, 민족성, 사회적 지위,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서 "하와이 섬의 작은 마을인 호노카아 주민을 위해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지난 5년간 매주 4~500명에게 무료 공양을 제공했다. 공양 봉사를 통해 봉사자들의 마음에 보람과 가피가 피어난다"고 말했다.

7만5000번째 공양을 받은 사람은 호노카아 주민으로 자원봉사자와 미치 로타스 호노카아 시장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호노카아 지역 주민들이 무료 대중공양 봉사에 참여해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출처=빅아일랜드비디오뉴스

않는 굳은 의지로 호노카아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혼간지 사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니콜라스 뉴랜드(17)는 "대중공양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으며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보람찼다"고 전했다.

호노카아 혼간지 사원의 오쿠무라 의장은 "지역 사업체, 농부, 농산물 제공자, 요리사, 식당 종업원 등 각계각층에서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지난 5년간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